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91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6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3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7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17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인류 역사는 인간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인류 진보의 척도는 인간의 존엄성이 될 것이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개별인간의 존귀함이 선포된 이후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끊임 없이 확대됐다. 인간 존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쟁의 참화와 대학살의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인권과 자유를 향한 인류의 진보는 멈춘 적이 없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인권과 자유를 위해 진보해 온 인류가 맞닥뜨린 또 한 번의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약고가 돼버린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이 다시 한번 인류 공동의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현재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를 비롯해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1948년도에 열강들에 의해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된 영토는 로마 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땅의 일부이다. 또한, 이 지역은 성서에 등장하는 유대 왕국이 존재했던 곳이며, 이를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난 백 년간 자원과 지정학적 이익을 둘러싼 열강들의 패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관계로 두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간 존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마스의 공격이 있는 후부터 지금까지 심층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의 하마스의 선제 타격 직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최소 3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과 여성, 노인 가리지 않고 군사 강국 이스라엘의 무차별 보복공격에 희생되고 있다. 개전 초기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의하면, 하루 평균 300명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류사의 비극 앞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일원이며, 동족상잔의 비극과 대학살의 상처를 딛고 살아온 대한민국은 지금, 가자 지구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을 향한 인류애를 요구받고 있다. UN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이 지닌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하고 있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은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인도주의는 인종, 국경, 외교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1864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은 ‘국적에 상관없이 다친 병사를 도와야 한다’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하물며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해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논쟁이나 정치적 고려도 필요치 않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동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3년 9월 13일 오슬로에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합의한 ‘오슬로 협정’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롭게 두 국가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을 당장 중지하고, 1993년 오슬로협정 정신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2023년 12월 유엔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인 대한민국 정부도 더 이상 가자지구의 비극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인류의 보편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민
국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칼 카우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3월 한국 방문 당시, “가자지구는 현재 재앙 그 자체다”라고 전함.

가자 지구는 현재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굶주린 난민들이 동물을 먹이기 위한 사료에 이르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건 모두 먹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음. 외신은 심지어 음식이 없는데도 요리하는 시늉을 하며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까지 있다고 전함. 특히 가자지구 북부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함.

지난 2월 말에는 구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 112명이 사망하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음.

유엔 산하 난민구호기구(UNRWA: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5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 인구 230만 명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함.

지난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대량학살을 저질렀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에 대해

집단학살 방지 조치와 함께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학살 관련 선동을 방지·처벌할 것,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할 것을 명령했음. 또한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라고도 명령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준수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자지구에서 고통받고 있는 난민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은 2023년 10월 7일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인하여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무력충돌을 중지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022년 말 출범한 이스라엘 새 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 가자지구 공습 등 對팔레스타인 강경정책을 펼치면서 2023년 초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대규모 무력 공격을 기습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 및 지상 작전을 지속하여 4만 2천명 이상의 사망자¹⁾와 약 17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였으며, 인도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

특히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병원, 학교, 언론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과 지상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1) 2024.10.24. 기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양측 약 44,047명 사망(이스라엘 1,200명, 팔레스타인 42,847명), 약 109,274명 부상(이스라엘 8,730명, 팔레스타인 100,544명)

OCHA(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칸 유니스 지역에서 민간인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 등 많은 사람이 대피지역에 갇혀 있어 피난처, 건강, 위생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WHO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변이가 가자지구에 확산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는 등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우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

2023년 10월 이래 유엔총회 회의 및 안보리 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관련 결의 등도 다수 채택되었음. 유엔총회 차원에서 2023년 10월과 같은 해 12월에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건 채택되었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즉각적인 휴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4건(2023년 11월 2712호, 2023년 12월 2720호, 2024년 3월 2728호²⁾, 2024. 6. 2735호³⁾)이 채택되었고, 인권이사회의 경우에는 매년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휴전 협상은 타결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 사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 2024년 3월 25일 2728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가자지구 접근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

3) 2024년 6월 10일 2735호, 인질석방 및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분배(1단계),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 및 적대행위의 영구적 종식 요구(2단계), 가자지구에 대한 다년간의 재건계획(3단계)을 포함한 3단계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2728호 공동 문안 주도국으로 참여하고, 안보리 결의 2728호, 2735호 등에 찬성하였으며, 관련 논의 시 휴전 및 인도적 지원 확대 지속을 촉구하였음. 또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올해 3,800만불⁴⁾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 해결에 동참하고 있음.

동 결의안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에 대하여 관련 당사국에 무력 충돌 즉각 중단 및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1대 국회에서 동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25870호)⁵⁾을 의결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가자지구 상황의 심각성, 유사입장국 포함 국제

4) 2024년 1월 800만불, 10월 부터 3,000만불 지원(9.27. 유엔총회 발표)

5) 21대 국회에서 2건의 안을 병합하여 대안 반영

- [212528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의원 등 77인)

- [2125130]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의원 등 14인)

6)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의안번호 2125870호)

1.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무분별한 폭력 행위 중단, 인도적 휴전 촉구
2. 민간인 보호,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 요구
3. 민간인의 즉각적 석방 요구 및 안전, 복지 및 인도적 대우 촉구
4. 가자지구 내 안전하고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 촉구
5.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깊은 우려
6.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따르며 인류애적 가치를 향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

사회의 민간인 보호 및 휴전 촉구 여론, 휴전·인질 석방·국제법 준수 등을 통한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감안할 때 결의안 추진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인권 문제 등 균형적 문안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질 석방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263